

이달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사이좋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꿈꾸며



지은이 : 이희정

다함께사이좋은 마을학교 대표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놀아주는 어른이 되다

함양 백전면 백전초등학교 학교협력형 마을학교인 다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를 운영한 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다.

부산에서 풍물패를 전공하여 녹지사(녹색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배낭 하나만 메고 국내 최초 녹색대학이 세워진 함양으로 오게 되었다.

여기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마을 살리기의 생태에 관심을 갖다가 아이들을 낳고 학부모가 되어 보니 작은 학교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교육과 문화적인 불편함이 너무 큼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풍물 선생님이 본인인 맞벌이 가정인 거 보니 저 역시 아이들을 맡길 데가 마땅히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저의 어린 자녀를 봐주기도 하고, 심지어 큰아이가 방과 후에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맞벌이 자녀들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발단되어 마을학교를 만들어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 휴대전화기가 없으면 놀 줄 모르는 아이들, 교통편이 좋지 않아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과 놀아주는 선생님으로 변신(?)한 것이다.



든든한 울타리 같은 마을교사들과 함께 이루는 꿈들

마을학교 안에서는 서로의 별명이나 이름 뒤에 '쌤'이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표시한다.

애니메이션과 콜라주, 랜드아트(대지 미술)를 가르치는 '사사쌤', 아이들과 마주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 대화하는 하브루타 '영선쌤', 목공수업을 하는 '영민쌤', 숲 밧줄 놀이와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계획하는 '도원쌤', 그 밖의 '춤쌤', '길쌤' 그리고 풍물을 담당하는 저 '바리쌤'까지 6명의 마을교사가 마을학교가 세워진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날마다 만나야 할 만큼 바쁜 일정 속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다 보니 방향성도 생겨나고 이제는 '척'하면 척, 피만 섞이지 않았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의지가 되어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마을교사가 직접 제작한 공간(게르)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매에~~~매~~~에~~~”

귀여운 염소 소리에 한 아이가 풀을 들고 염소를 뒤 따라간다. 염소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게르(몽골식 텐트)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이곳의 공간은 녹색대학의 '온배움터'로 쓰고 있다. 이 공간을 빌려 마을주민들과 나무 도마를 만들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텃밭을 키우고, 여름에는 마을주민들과 축제를 한다.

마을학교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전초를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청소년, 어른 등 더 많은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게 되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험도 하고, 주민자치 공모도 하며 마을을 살리고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함양도 하루빨리 행복교육지구가 되어 아이들이 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기의 삶에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몫, 결국 마을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일 지도 모른다.

올해는 아이들과 트리하우스를 만들어 '툰 소녀의 모험'처럼 나무 위의 집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동네 어른들과 동네 아이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조합 아닐까?

2021년 06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6호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 편집] 성경은 / 문의 : 055.268.1523

-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2. 양산 가촌마을학교 온가족 프로그램 3. 창녕공감다소니마을학교 수업현장 4. 이달의 사람책-이희정 마을교사

TOP NEWS

행복교육지구 13곳, 지역교육자치의 길에 서다



2021년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1차 회의모습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달 14일(금) 오후 경남행복마을학교에서 2021년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6명의 도·시군·교육청 관계자, 민간활동가로 구성된 이번 운영위원회는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도민과 함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들초, 마을교사에게 감사의 카네이션 증정

한들초등학교(교장 신종규)는 지난 달 14일(금) 오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로 한들산들 마을학교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작은 선물을 기획하였다. 이날 마을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 받은

구세라 마을교사는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더욱 힘이 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한들초 교사들이 준비한 카네이션과 아이들의 손편지 전달

따오기창녕행복교육지구 로고 및 심볼마크 공모 심사

창녕행복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 부터 개최한 따오기창녕행복교육지구 로고 및 심볼마크 공모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창녕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의미와 지향점을 잘 담아낸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개최하였다.

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로 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12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은 앞으로 따오기 창녕 행복교육지구 대표 이미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작>

자연과 더불어 살고 희망찬 창녕을 꿈꾸는 '미래를 품은 으뜸 창녕인'이라는 의미를 가짐

가촌리에서 재미있게 살아요~

양산 가촌마을학교, 온 가족 프로그램 <놀자~숲!!>운영

안산 행복교육지구 학교 협력형 마을 학교

[온 가족 프로그램]

놀자~숲!!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자연 놀이 활동
숲 체험 & 밭줄 놀이 활동

날짜 - 5월 22일, 29일 (토요일 1타임)
시간 - 오전 10시 ~ 13시 (3시간 일정)
인원 - 날짜별 5가족 (30인 이내) 선착순 모집
장소 - 거북산
비용 - 무료

참여방법
네이버 공식 밴드를 통해 네이버 폼 작성

5월 2회의 토요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놀자~숲!!

양산 가촌리에 있는 학교협력형마을학교 가촌마을학교에는 작년부터 생태 놀이, 가촌 놀이터, 마을 주민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마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꿈꾸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가촌리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2일(토)에는 물금읍 남부 공원 광장 앞에 모여 5월의 온 가족 프로그램인 '우리 마을, 거북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놀이 & 밭줄 놀이'인 <놀자~숲!!> 활동을 위해 마을학교 8가족들이 잔뜩 신나고 들뜬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거북산을 오르기 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숲 놀이에 관한 안전예방 교육을 듣고 길벗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미션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거북산을 올랐다.

<미션> 나는 하나의 줄기에 세계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의 꽃이 모여 한 송이를 이룹니다.
나의 냄새는 달콤합니다. 나의 잎을 따주세요~



아이들이 따온 팽이풀과 세잎클로버

거북산을 오르면서 채집한 자연물들로 캔버스 위에 작품을 만들고 가족들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에게 숲놀이는 언제나 전리죠~



드디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밭줄 놀이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 이웃, 내 친구를 밧고 밧줄 하나에 몸을 맡겨본다.



가촌리 마을학교는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구를 알고, 이웃을 알고, 마을을 알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가촌마을학교 아이들이 놀이를 주도하며 다양한 배움의 주인이 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된다.

지구야~아프지마!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공감다소니 마을학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배우는 마을학교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공감 다소니 마을학교는 올해 창녕행복교육지구가 되면서 창녕의 아이들과 함께 주말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다. 염색 반에서는 여러가지 기법의 천연 염색과 꽃차체험을, 가족공예 반에서는 직접 실을 짜고 천을 짜보는 직조 활동과 가족공예를, 도자기 반에서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내 손으로 빚는 생활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수공예활동을 하고 있다.



고동편이 불편한 산골짜기라도 발걸음은 훌훌라~



공감 다소니의 공간은 누에실을 뽑아 만든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지난 5월 29일(토)에는 서로 다른 마을의 8명의 초·중학생들과 함께 '천연 염색으로 나만의 인견 티셔츠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염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전통 무늬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염색을 할 때 무늬를 내는 도구(틀, 판)들과 무늬 모양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았다.

수업 전 염색과정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천연 염색 과정>



1. 무늬를 내는 방법 연습해보기 2. 티셔츠 깨끗이 씻어 꼬옥~짖다(불순물 제거)



3. 티셔츠에 도구를하여 무늬 꾸미기 4. 조물락 조물락~쪽염색 입히기



5. 염색 후 도구 제거하기 6. 그늘에 말리면 완성~

마을학교 윤귀숙 대표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창녕에 정착하면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마을학교를 통해 마을의 아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며 사라져 가는 전통적 가치와 자연 친화적 문화를 아이들이 알게 할 수 있으니 정말 보람된 일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녕중(1학년) 여도윤 학생은 "주말에는 거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여럿이 체험 수업을 해보니 보람되고 재미있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말하였다.



더 통통하고 달달한 고기를 찾아서~

간식으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있는 아이들